

# ‘전북도 탄소산업 발전위’ 공식 출범

### 메가 탄소밸리 구축·기업유치 240개·매출 10조원 등 목표로 업무 본격 시작

전북도가 규제프리존 관련 지역전략 산업육성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전북지역 탄소산업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심점이 마련됐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탄소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으로써 전북지역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체제가 구축됐다.

위원회는 각 분과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북지역 탄소산업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발굴·기획하고 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위원회는 도의 '탄소산업 2025 비전'의 목표를 달성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위원회는 이형규 전북도 정부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탄소관련 연구기관, 학계, 기업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19명의 위원과 4개분과 실무협의회 40여명의 총 60여명으로 구성됐다.

참가기관 및 참여 단체로는 KIST전북분원, 전북TP,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연구개발특구 전북본부, (주)효성, 원광에너지, 전주대, 한양대 등이 있다.

실무협의회는 각 분과는 탄소정책분과, 탄소융복합 분과, 탄소소재산업분과, 나노방사선 분과 등의 4개분과가 설치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지난 해 7월 전북도가 '탄소산업 2025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 메가 탄소밸리 구축, 기업



2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이형규 정부부지사를 비롯 60여명의 국내 탄소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탄소산업발전위원회'의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유치 240개, 매출 10조원, 고용유발 3만5,000명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조선·해양, 농·산업기계 등의 사업에 탄소섬유를 적용시켜 융·복합을 통한 응용산업 중심의 탄소산업 4대 전략기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산업을 상호화 하기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특구로써 탄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탄소소재의 전북지역 자급률 80% 목표 달성 등을 위한 현안과 정책을 기획·결정할 예정이다.

이형규 정부부지사는 발전위원회 출범식에서 "앞으로 탄소산업의 성장속도를 앞당기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고비용 제조공정

문제 및 탄소제품 인증시스템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한 R&D와 시장개척을 위한 기업지원 기반 마련 등 국가정책으로 반영시킬 정책과 시책 발굴 기능을 탄소산업발전위원회 중심으로 그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영수기자

### 송 지사 세계잼버리 유치위해 한국스카우트 평생회원 가입

25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023 세계잼버리 대회 새만금 유치를 위해 한국스카우트 평생회원 가입했다.

스카우트간 동질감 형성 및 스토리라인 구축에 세계잼버리 2023새만금 유치 전략에 반영하겠다는 복안이다.

오는 3월 '아프리카 스카우트 데이'에 참가해 아프리카 스카우트 연맹에 2023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적극 홍보하고 스카우트 창시자인 베인포우웰의 묘지를 참배하는 등 2023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해 스카우트 가족으로서의 연대감을 호소할 예정이다.

송 지사는 "전북도민이 온 힘을 모아 세계스카우트들의 최대 축제인 2023 세계잼버리가 새만금에서 열릴 수 있도록 총력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수기자

### 전북도, 올해 지방직 공무원 866명 신규채용 계획

전북도가 2016년 지방직 공무원 866명 신규채용 할 계획이다.

25일 전북도는 '2016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지난 17일에는 '2016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에 공개채용하는 공무원은 일반직 728명과 소방직 138명이다. 당초 도는 일반직 공무원 678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의원면직이나 육아휴직, 타기관 전출 등으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50명 증원됐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직 공무원은 26개 직렬 38개 직류에서 7급 11명, 8급 24명, 9급 659명, 지도사 24명, 연구사 10명 등 총 728명이며 소방직 공무원은

8개 분야에서 소방사 131명, 소방교 3명, 소방장 3명, 소방경 1명 등 총 138명이다.

이번 채용시험에서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36명, 저소득층 25명을 구분 모집한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55명과 특성화고·미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고졸자 10명,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재난 및 자연 재해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난관리 역할을 강화를 위한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8명을 구분 모집할 계획이다.

주요 시험일정으로는 3월19일 사회복직, 4월9일 소방직, 5월21일 7급·

9급·연구사 공개(경력)경쟁시험, 6월 18일 8~9급 공개경쟁시험, 10월1일에는 7급지도사·기술계고교 공개(경력)경쟁시험이 시행된다.

모든 시험의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해당시험 접수 기간 중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si.go.kr>)에서 할 수 있다.

올해 시험에 대한 채용인원, 응시자격, 가산혜택 등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onbuk.go.kr>) 시험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라북도 총무과 고시팀(063-280-2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수기자

### 도, 농산물(GAP) 인증 갱신 농가 부담금 지원

전북도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갱신해야 하는 농가가 올해 65%에 달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부담금을 도가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25일 전북도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의 보편적 확산을 위해 2개 사업에 22억원을 투입하고 GAP 인증 갱신을 위한 토양·수질·중금속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GAP 면적은 11,009ha로 전국 대비 17%(65,410ha)에 달한다. 품목별 재배면적은 44개 품목 중 쌀 68.6%, 사과 6.1%, 보리쌀 5.7%, 감자 4.1% 등이다.

GAP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올해 도내 농가중 유효기간 만료인 농가는 65%에 이른다. 이 농가들에 대해 도가 조사한 올해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는 총 4억4,000만원으로 2933건으로 조사됐다. 도는 GAP농산물 인증서와 안전성 검사성적서, 영수증 등 필요서류를 오는 11월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회수에 제한 없이 지원해준다는 방침이

다. 다만 GAP인증 심사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연중 수확하는 품목(상추, 깻잎 등)에 대해서는 농약 및 중금속 검사를 1회로 제한함으로써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다.

또한 도는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정함으로써 GAP 인증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GAP 인증에 필요한 사전 안전성검사비로 18억여원을 투입하고 주산지로 육성할 지역에 대해 토양, 용수 등을 사전검사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2017년까지 GAP면적을 전북 경지면적의 9%(1,360ha)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사전 예방적 관리제도인 GAP 조기 정착이 필수적"이라며 "전북도 농산물의 고품질화와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인들이 GAP 인증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영수기자

### 정부, 지방규제 개혁 가속화

#### 지방공기업 불합리 정관·약관 정비·지자체 인허가창구 확대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정·약관 등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전담창구를 확대해 복합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규제 개혁 가속화를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규제 혁신 가속화를 위해 25일 국무조정실, 법제처와 합동으로 시도 및 시·군·구 지방규제 개혁과 등록규제 담당공무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규제 혁신 워크숍을 열었다.

행자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국무조정실, 법제처 등과 협업해 올해 ▲국민접점의 규제혁신 ▲행태규제 완화 ▲중앙-지방 협업 강화 ▲점검·평가 강화를 통한 자율경쟁 유도에 포커스를 맞춰 지방규제 개혁을 추진하여 규제개혁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접점의 규제혁신을 위해 기존의 기업 관련 규제혁신 뿐만 아니라 시·군·구 단위의 기존산업을 육성하고 해부용 규제를 해결하는 지역 특화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국민 생활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 혁신은 물론 불

합리한 지방공기업의 정관, 약관 등도 정비할 계획이다.

또 공직자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검사, 적극 행정면책 등을 적극적으로 확산·정착시킨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전담창구를 확대해 복합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제처와 협업해 일선창구에서 어려움을 겪는 애매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모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공개할 계획이다.

행자부가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경제단체와 연결통로가 되어 지방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경제단체, 중앙부처와 협업해 해결해나가고, 지방에서 애로를 겪는 중앙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협업할 방침이다. 이인재 행자부 지방행정정책관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행정부처인 규제 개혁 추진에 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자들에게 과감한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주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스피치·웅변·면접·리더십·시낭송

-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택(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 소통과 감성의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 교수 • CEO 과정 담당 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 교수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 회장
- 전북최초 스피치과정 설치 강의자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말, 말말', '스피치노하우' 등
- 방송: KBS 아침마당(3회), MBC 전라도사람들, JTV현장다시보기 등 방송출연



※ 과 목: ① 스피치기법과 리더십 ② 스피치최고지도사(고급) ③ 주말반: 토요일(매주 1회수업) ④ 면접반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익산캠퍼스)
- 서남대학교 평생교육원(남원, 순창, 장수)
-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군산, 김제, 부안)
-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완주, 김제)
-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임실, 완주)
-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정읍, 고창)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